



IBKS Spot Comment

자동차/기계

이상현

02 6915-5662

coolcat.auto@ibks.com

[자동차]

G2 국가의 자동차 관련 불확실성 완화

What's New: 미국과 중국의 자동차 관련 불확실성 완화

- 전일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자동차 관련 외신 보도 등으로 국내 자동차 관련주 상승
-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와 관련 완화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보도
- 중국의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도

Analysis: 미국의 완화된 시각과 중국의 연착륙 시도

▷ 미국 무역 전문매체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세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

1)모든 수입차와 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 부과, 2)미래 자동차 기술인 CASE(Connected, Automated, Shared, Electric) 관련 차량과 부품에 관세 부과, 3)일률적 수입관세 부과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CASE 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ex. 쿼터제)

-미국 상무부의 최초 강경한 입장에서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

-상무부의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2/17)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

▷ 중국 정부(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합동)가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년보다 더 많은 감세와 채권발행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재정부에서는 감세와 채권발행 확대 언급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 언급

-인민은행은 기준을 인하를 통해 유동성 확대 추진하고 자동차와 가전 등에 대한 소비 촉진 정책을 제정할 것으로 언급

-참고로 중국자동차제조업협회(CAAM)는 2018년 중국 자동차 생산 및 판매 결과를 발표함. 생산은 4.2% 감소한 2,781만대, 판매는 2.8% 감소한 2,808만대를 기록. 연간 판매 감소는 1990년 이래 28년만에 처음으로 알려짐. 특히 하반기 들어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연간으로도 하락세를 기록. CAAM은 2019년 중국 자동차 수요를 전년과 유사한 2,810만대 수준 전망

So What?: 우려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불확실성 완화는 긍정적

-미국의 수입차 관세 및 중국의 자동차 수요 관련 불확실성 완화는 긍정적으로 평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는 일률적인 부과보다는 CASE나 쿼터제인 경우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자동차 수요 하락이 지난해 하반기 시장의 우려를 가져왔던 점을 감안할 때 부양책 언급은 소비심리 개선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현대차그룹의 경우 2018년 3분기 실적 쇼크 이후 신차 반응 호조로 점차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미국 수입차 관세와 중국내 한국차 점유율 하락, 미국 화재관련 집단 소송 등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성 완화는 주가 회복세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

표 1. 중국 자동차 판매 동향

	Dec. 2018			Jan.-Dec. 2018		
	Sales Vol. (10,000 units)	Share(%)	Y-o-Y(%)	Sales Vol. (10,000 units)	Share(%)	Y-o-Y(%)
Sedan/Hatchback	102.9	38.6	-14.3	1,152.8	41.1	-2.7
MPV	17.6	6.6	-22.9	173.5	6.2	-16.2
SUV	98.2	36.9	-16.3	999.5	35.6	-2.5
Mini Van	4.7	1.8	-9.7	45.3	1.6	-17.3
Passenger Cars Total	223.3	83.9	-15.8	2,371.0	84.4	-4.1
Commercial Vehicles Total	42.8	16.1	5.2	437.1	15.6	5.1
Grand Total	266.2	100.0	-13.0	2,808.1	100.0	-2.8

자료: CAAM, Markines

표 2. 브랜드 원산지별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Dec. 2018			Jan.-Dec. 2018		
	Sales Vol. (10,000 units)	Share(%)	Y-o-Y(%)	Sales Vol. (10,000 units)	Share(%)	Y-o-Y(%)
Chinese brands	98.0	43.9	-24.3	998.0	42.1	-8.0
Japanese brands	41.5	18.6	10.2	444.6	18.8	5.7
German brands	44.2	19.8	10.0	508.1	21.4	4.8
American brands	20.0	9.0	-39.6	247.8	10.5	-18.5
Korean brands	16.0	7.2	8.6	118.1	5.0	3.1
French brands	1.6	0.7	-71.6	30.7	1.3	-32.7

자료: CAAM, Markines

표 3. 중국 자동차 생산 동향

	Dec. 2018			Jan.-Dec. 2018		
	Sales Vol. (10,000 units)	Share(%)	Y-o-Y(%)	Sales Vol. (10,000 units)	Share(%)	Y-o-Y(%)
Sedan/Hatchback	101.0	40.7	-17.9	1,146.6	41.2	-4.0
MPV	16.8	6.8	-15.9	168.5	6.1	-17.9
SUV	83.5	33.7	-26.4	995.9	35.8	-3.2
Mini Van	4.2	1.7	-7.7	42.0	1.5	-20.8
Passenger Cars Total	205.5	82.8	-21.3	2,352.9	84.6	-5.2
Commercial Vehicles Total	42.8	17.2	-1.0	428.0	15.4	1.7
Grand Total	248.2	100.0	-18.4	2,780.9	100.0	-4.2

자료: CAAM, Markines

표 4. 한미 FTA 주요 개정 내용(2018년 9월말 개정 협상 타결, 2019년 1월 1일 발효)

한국	미국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SDS) 개선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행사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20년 연장(2021 → 2041년))
미국의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 관련 반덤핑 상계관세를 계산 방식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출허용량 확대(업체당 2.5만대 → 5만대)
섬유제품 원료 일부에 대한 역외 원산지 인정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해 제 3국 생산 원료를 사용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 인정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규정 고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BK투자증권

표 5. NAFTA와 USMCA의 자동차, 부품 관련 협정 주요 변동사항(2018년 9월말)

분야	NAFTA	USMCA
역내 부가가치	62.5%	75.0%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 쿼터	-	260만대로 제한
원재료 구매조건	-	복미산 철강, 알루미늄 비중 70% 이상
노동 부가가치	노동 기준에 대한 부가협약 존재	승용차의 40%, 경중량트럭의 45%는 시간당 US\$ 16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산한 부품이어야 함

자료: KOTRA, IBK투자증권